

제232호 (2009. 11. 9)

■ 경제 동향

- 9월 국내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58.4% 급등

■ 정책·경영

- 2010년 국내 건설수주 3.6% 증가 전망
- 2010년 주택 가격 4% 상승 전망

■ 정보 마당

-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 40% 감축해야”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대중소 건설업계의 조화로운 성장이 필요한 때”

9월 국내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58.4% 급등

- 9월 수주 급등세가 3/4분기 증가세 전인, 향후 호조세 지속은 어려울 듯 -

■ 공공 및 민간수주 모두 호조세

- 9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58.4% 증가한 8조 7,414억원을 기록함.
- 공공부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진했던 토목수주가 다시 반등하고 주택 수주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01.1% 증가함.
 - 공공 토목수주는 지난 8월 잠시 부진(-18.0%)했는데, 9월 들어 다시 전년 동월 대비 146.0% 증가한 2조 9,019억원을 기록
 - 건축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3.0% 증가한 6,733억원을 기록했는데, 비록 비주택 수주가 -9.4%로 부진했으나 주택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41.4% 증가함.
- 민간부문은 토목과 건축수주가 모두 올해 들어 최대 금액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61.8% 증가, 10개월 만에 플러스(+) 증가세를 시현함.
 - 민간 토목수주는 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 수주와 제조업 기계설치 수주 증가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수주액인 1조 2,135억원(+143.1%)을 기록함.
 - 건축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5.7% 증가한 3조 4,949억원임. 비주택수주가 부진(-6.6%)했으나, 인천과 경기도의 신규 주택사업 증가로 주택수주가 큰 호조(+78.5%)를 보임.

<2009년 9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08. 9월	5,519.5	1,778.9	1,179.6	595.9	262.6	333.3	2,911.3	499.3	2,398.6	1,474.6	924.1
2009. 9월	8,741.4	3,576.5	2,901.9	673.3	371.2	302.1	4,709.3	1,213.5	3,494.9	2,631.6	863.3
증감률	58.4	101.1	146.0	13.0	41.4	-9.4	61.8	143.1	45.7	78.5	-6.6

자료 : 통계청

- 세부 공종별로 건축수주 중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수주가 호조를 보였으나, '공장 및 창고'와 '관공서' 수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주택'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73.7% 증가, '사무실 및 점포' 수주는 부동산과 금융 업종의 민간 오피스 수주가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함.

- 토목 수주, 대부분 공종에서 증가세
 -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수주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83.7%, 1,686.5% 증가함.
 - ‘치산치수’ 수주는 한강 6공구를 비롯한 4대강 사업물량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금액인 5,513억원을 기록함.
 - 지난 8월 부진(-63.6%)했던 ‘토지조성’ 수주는 9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22.0% 증가함.
 - ‘발전 및 송전’ 수주도 전년 동월 대비 289.7% 증가했으며, 지난 5~8월까지 부진을 지속했던 ‘기계설치’ 수주도 제조업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3% 증가함.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치산치수	토지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설치
2009. 9월	3,017.1	547.3	272.1	205.6	156.7	715.7	1,025.9	551.3	682.7	510.5	783.6
증감률	73.7	11.4	-4.5	-42.3	-78.4	83.7	1,686.5	1,458.7	22.0	289.7	102.3

자료 : 통계청

■ 3/4분기 국내 건설수주 플러스(+) 반등, 4/4분기에는 증가세 지속 어려울 듯

- 9월의 큰 호조세로 3/4분기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함.
 - 국내 건설수주는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5%, 2.0% 감소함.
 - 이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여 2007년 4/4분기 이후 6분기(1년 6개월) 만에 플러스(+) 증감률을 기록함.
- 그러나, 3/4분기 증가세는 지난 2008년 3/4분기 수주액이 부진한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며, 4/4분기에는 3/4분기보다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작년 3/4분기에는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22.7% 급감한 17조 610억원에 불과했음.
 - 또한, 작년 12월 수주가 급등(+30.7%)한 것을 감안하면 올 4/4분기에는 3/4분기처럼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분기별 국내건설 수주액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분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4 ~ 3/4
수주액	21,048	25,995	17,061	38,217	102,321	17,567	25,485	18,620	61,671.1
증감률	-3.7	-6.1	-22.7	-6.5	-9.0	-16.5	-2.0	9.1	-3.8

자료 : 통계청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2010년 국내 건설수주 3.6% 증가 전망

－ 공공 및 토목수주 올해 조기발주로 인해 감소, 민간 및 건축수주는 회복세 보일 듯 －

■ 2010년 건설수주, 올해보다 3.6% 증가한 115.8조원 전망

- 2010년 국내 건설수주는 국내 경기의 회복 및 주택 경기의 소폭 회복에 따라 주택수주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가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올해 대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그러나, 올해 국내 건설수주를 지탱했던 공공 건설수주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올해 대비 소폭(3.6%) 증가한 115.8조원(경상금액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국내 건설수주가 올해 대비 소폭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올해 건설수주가 매우 침체되었기 때문이며, 2008년(120.1조원) 대비로는 3.6% 감소하는 것이어서 수주액 자체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2010년 건설수주 전망 >

구 분	2006	2007			2008			2009(e)			2010(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29.5	14.3	22.8	37.1	17.4	24.4	41.8	31.8	30.5	62.3	46.9
민간	77.8	41.6	49.2	90.8	37.7	40.6	78.2	19.0	30.5	49.5	68.9
토목	28.4	16.2	20.0	36.2	14.9	26.3	41.3	27.8	25.5	53.3	43.6
건축	78.9	39.7	52.0	91.7	40.2	38.6	78.8	23.0	35.5	58.5	72.2
주거	53.3	25.6	32.5	58.1	23.6	21.0	44.7	12.0	21.8	33.8	44.5
비주거	25.7	14.1	19.4	33.6	16.6	17.6	34.2	11.0	13.7	24.7	27.7
계	107.3	55.9	72.0	127.9	55.1	65.0	120.1	50.8	61.0	111.8	115.8
증감률 (% , 전년동기비)											
공공	-7.2	20.5	29.1	25.6	22.1	7.0	12.8	82.2	25.1	48.9	-24.7
민간	15.2	25.2	10.4	16.7	-9.4	-17.6	-13.9	-49.6	-24.8	-36.7	39.2
토목	-6.6	43.6	16.9	27.5	-7.6	31.4	14.0	85.9	-3.1	29.1	-18.1
건축	14.4	17.4	15.3	16.2	1.1	-25.7	-14.1	-42.7	-8.0	-25.7	23.3
주거	23.9	18.9	2.5	9.1	-7.8	-35.3	-23.2	-49.1	3.6	-24.2	31.4
비주거	-1.2	14.9	45.5	30.8	17.3	-9.5	1.8	-33.7	-22.0	-27.7	12.1
계	8.0	24.0	15.7	19.2	-1.4	-9.8	-6.1	-7.9	-6.0	-6.9	3.6

주 : 2009년 하반기, 2010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공공건설, 2009년 대비 24.7% 감소한 46.9조원 전망
 민간건설, 2009년 대비 39.2% 증가한 68.9조원 전망

- 부문별로는 공공건설수주가 24.7%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주액 자체로는 2008년 수준을 넘어서며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민간 건설수주는 3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수주액 자체로는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 공공부문은 올해 조기발주로 인해 2010년에는 올해 대비 24.7% 감소하나 수주 금액 자체로는 2008년 수준을 넘어서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공 토목수주의 감소 전환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택수주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민간부문은 주택수주가 재개발/재건축, 공공택지내 사업 및 공공도급 사업, 공급 연기 물량 위주로 회복세를 보이고, 비주거용 건축수주와 민자사업도 차츰 회복세를 보여 올해 대비 39.2% 증가한 68.9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주액 자체로는 2008년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 토목수주 : 2009년 조기 발주로 인해 감소, 수주액은 양호
 건축수주 :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회복세, 수주액은 부진

- 공종별로는 토목수주가 올해 공공 토목공사 조기발주로 인해 감소하고,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수주액 자체로는 토목수주는 양호하고,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 토목수주는 민자사업(민간 토목수주)이 다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조기발주로 인해 공공 토목수주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18.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공공 수주와 마찬가지로 수주액 자체로는 2008년 수준을 넘어서며 여전히 양호할 전망이다.
 - 주거용 건축수주는 건설업체들의 택지 확보가 여전히 부족하여 재개발/재건축, 공공택지내 사업 및 공공 도급사업, 공급 연기물량 위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인데, 기저효과에 의해 증가율은 3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주액 자체로는 2008년 수준에 그쳐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2010년 국내 경제가 4% 내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츰 회복세를 보여 1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주액 자체로는 2008년 수준에 못 미쳐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2010년 주택 가격 4% 상승 전망

- 전세 가격은 지역별 규모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약 5~6% 오를 듯 -

■ 내년도 주택, 토지가격 모두 상승세

- 2009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격 변동의 차별화’, ‘개발금융의 리스크 회피 심화’, ‘공공역할 확대와 공급시장의 기형화’ 등 4가지 특징으로 요약
 -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거시 경제지표의 회복 등에 힘입어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가격과 거래량 모두 상승함.
 - 토지 주택 모두 전반적인 가격 지수는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소형, 재건축 대상, 준공 후 2년 미만의 신규 아파트 등은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크게 상회함.
 - 한편,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리스크 회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신규 주택건설 실적은 외환위기 이래 최저수준을 나타냄.
 -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DTI 규제 등 수요억제를 위한 경기조절책을 병행하고 있음.
 - 신규 주택인허가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4/4분기 분양예정물량은 사상 최대의 물량(14만호)이 예정되어 있음. 이는 연말부터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 2010년 부동산시장은 ‘실물경기 회복 여부’, ‘정부의 정책기조’, ‘지방선거의 파급효과’, ‘정비사업의 활성화 정도’, ‘학습효과와 시장의 심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듯
 - 내년 세계경제와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조절 정책은 민감하게 경기 과열이나 위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져 급격한 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다만,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용스프레드 조절로 수요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올해 들어 중앙에 집중된 계획 권한이 대규모로 지방에 이양되었고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와 겹치면서 공약성 개발계획이 양산되면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음.
 - 고밀도 재건축사업은 경제성이 높지 않으나 최근 부동산시장은 정비사업의 영향력이 커져 개발 기대감을 형성시킬 것으로 예상됨.
 - 외환위기 당시의 공급부족이 시차(2~3년)를 두고 주택가격을 급등시킨 경험은 시장에 학습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2010년 수요·공급·가격 전망>

수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률의 증가, 가계소득의 감소, 높은 가계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 회복에는 한계 - 그러나, 전세가격 상승세, 공급부족 우려, 학습효과 등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선매수에 대한 수요압력 커질 듯 (금리 상승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요 위축 있을 수 있으나 신용스프레드 축소로 충격은 둔화)
공급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입주물량은 2009년보다 6.5% 증가한 30만호 공급 예상 - 서울에서는 강북지역의 입주물량이 다수. 경기도 지역에서는 서북권 배후지역인 경의축 물량도 다수 - 주택건설실적(주택건설사업승인)은 35만~38만호로 2008년 수준 정도 예상 -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민간부문 회복세는 더딜 듯
가격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부문의 더딘 회복세와 가계부실의 위험, 미분양 적체 등 하방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학습효과, 지자체 선거, 수도권 수급불균형 등 상승 요인이 더 많음. - 서울 도심의 공급부족, 재건축시장의 기대감, 지자체 선거 등의 영향에 따라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주택가격은 4% 수준 상승 전망 - 그러나 2010년 주택가격의 변동폭은 국지적·세부상품별로 올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전세가격은 소득회복의 지연, 보증자리주택 대기수요, 재정비사업에 의한 멸실 주택 증가로 전세수요가 증가하면서 강세가 이어질 전망 - 토지시장 :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공공택지의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듯

<2010년 토지 및 주택가격 전망(전국)>

(단위 : 전기말 대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e)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e)	연간 ^(e)	연간	
토지	3.9	-0.3	-1.2	0.3	0.9	1.0	1~2	3.0	
주택	매매	3.1	3.1	-1.0	0.4	1.3	0.8	1~2	4.0
	전세	2.6	1.7	-1.1	0.6	2.3	1.5	3~4	5.0~6.0

주 : 1) 토지가격은 온나라포털 지가동향,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의 주택종합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2) 2009년 4/4분기, 2009년 연간, 2010년 실적은 추정치임.

■ 지역별·상품에 따라 차별적인 회복세 보일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회복세는 지역별·상품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사업전략 및 정책 방향도 변화가 요구됨.
 - 건설업체들은 현재의 미분양 적체 등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신규사업도 선별적 대응과 차별화된 상품구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요구됨.
 - 부동산 정책 역시, 그 동안 양적 중심의 정책에서 이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김현아(연구위원·hakim@cerik.re.kr)
 허윤경(연구위원·ykhur@cerik.re.kr)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40% 감축해야”

– 2050년에는 지구 온도 3℃ 상승, 지구온난화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줄여야 –

■ 지구온도 매년 0.74℃ 증가, 2050년에는 생물의 30%가 멸종 위기

- 빈번해지고 있는 지구촌의 기상재해로 인해 인류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태임.
 - 현재와 같이 에너지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는 매년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GDP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에너지 및 자원 부족은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난을 지속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대기 내 탄소 농도는 과거 100년 동안 매년 2ppm씩 증가되어 왔음.
 - 산업혁명 이전 대기 내 탄소 농도 280ppm이 2007년 384ppm으로 증가되었고, 2050년에는 550ppm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100년간 지구온도는 평균 0.74℃ 상승하였고, 2050년에는 3℃가 상승하여 생물의 20~30%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도시와 건축물

- 도시가 소비하는 에너지와 배출 가스량 비중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
 - 도시는 주택, 건물,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와 폐기물 등 다양한 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시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라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됨.
- 국내에서 제공되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미국의 통계기준을 통해 검토함.
 - 미국의 경우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50.1%를 점유하고 있으며,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비중은 전체 배출가스의 49.1%를 차지함.
 - 한편, 건물의 전기 사용량은 미국 전기 생산량의 74.5%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됨.
-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배출 가스량을 199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5~40% 저감해야 함. 그리고 2050년까지는 최소 80~95%까지 저감해야 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 2010년까지 건물에너지 사용량 30% 저감 목표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83%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1990년 대비 약 80% 수준임.
- 미국 하원의회에서 통과된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H.R. 2454) 201장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저감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2010년까지 건물에너지 사용량 30% 저감을 목표 함.
 - 2015년까지 기준을 50%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매년 추가로 5%씩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목표로 함.
-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기준 강화 온실가스가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20.3% 감소되고, 2050년까지 2005년 기준 48.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선진 각국들, 탄소거래세 및 국경세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강제

- 탄소거래세와 국경세 도입 예상
 - 유럽계와 북미계 국가들은 자국의 탄소배출량 저감이 자리를 잡게 되는 시점에 이르면 에너지 사용과 연계한 탄소배출권 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모든 제품에 에너지 사용량에 상당하는 탄소거래세를 부과시키는 이른바 국경세를 도입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강제하게 될 것임.

■ 우리나라도 에너지사용량 저감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 건설과 건물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는 적극적인 정책 필요함.
 - 건물을 포함한 도시의 에너지 사용량 50% 저감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5%까지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지구온난화 예방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로 판단됨.

이복남(연구위원·bnlee@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1.2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과 주최 전문가 자문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국산 기자재 및 국내 인력을 활용한 외화기득를 제고방안’에 대한 자문
11.3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인력기재과 주최 4대강사업 관련 기계 장비 수급 실태 점검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4대강사업 관련하여 건설기계장비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연구원의 전망분석자료 설명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자문

■ 연구원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연구보고서	대표품목에 의한 공사비지수 구축 및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며 원가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유용한 수단으로, 국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건설공사비지수 관련 연구 및 실제 지수를 개발·발표함. ■ 본 연구는 기존 공사비지수와는 달리 건설공사비지수의 근간이 되는 원가 투입구조에 대한 보다 실체에 근접할 필요성에 의해 수행하였음. ■ 건설산업이 다루는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내역서를 수집, 분석하여 원가 투입구조를 산정하는 방법과 체계를 개발하였음. ■ 효율적인 지수 산정을 위하여 대표성 높은 소수의 품목을 도출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 대표품목들이 여타 품목들의 가격변화까지 대표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코자 하였음. ■ 건설공사비지수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지속적인 투입원가구조 추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연구결과물은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서 열람 가능

■ 공정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개설

- 연구원은 11. 6(월) ~ 20일(금) 5일간, 방배동 HKCMC EDU-CENTER에서 건설 및 유관업체 공정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정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개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팀(TEL. 3441-0691) 또는 홈페이지(www.cerik.re.kr) 참조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무과정 개설

- 연구원은 11. 25(수) ~ 27일(금) 3일간,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에서 건설 및 유관업체 부동산, SOC사업 관련 실무자 대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무과정’ 개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팀(TEL. 3441-0691) 또는 홈페이지(www.cerik.re.kr) 참조

“대중소 건설업계의 조화로운 성장이 필요한 때”

IMF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두 달 전 전망치보다 2%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 위축을 겪었으나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환율 하락 등에 힘입어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경제활동도 크게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때 건설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함으로써 국내 경제 회복의 핵심동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제도부터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8월에는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10월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공사물량 산출방식 개선(내역입찰제 도입),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사제 개선,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 적격심사제 평가방법 개선, PQ 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 등이다. 기존 가격 위주의 경쟁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 계약제도의 밑바탕을 그려나가겠다는 혁신의 시작이다.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를 향한 제도개혁드라이브는 강력하고 집중력이 있다. 또 계약제도 전반을 아우를 만큼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국가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시행방안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체의 86%를 구성하고 있는, 설립된 지 10년 이내의 업력을 지닌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이들 대다수의 중소 건설업체들은 영세한 사업 규모로 인하여 생존 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은 대형업체에서부터 중소업체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체가 어우러져 있어 대중소 업계의 상생과 협력 없이는 경쟁력 강화가 불가능하다. 대중소 업체간, 원하도급자간 협력관계혁신을 통해 수직적이고 적대적인 생산체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체계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평적인 협력관계에 기반한 파트너링이야말로 날로 확산되고 있는 생산체계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볼 수 있다. 건설산업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중소 건설업체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대중소 건설업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통해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회생에 기여하는 선진 산업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건설이코노미, 2009. 10. 26>

김흥수(원장:infra@cerik.re.kr)